



Global Packaging News

USA

워싱턴 DC. 플라스틱산업협회

NPE2024 미주 지역 바이오플라스틱 전시회

워싱턴 D.C. 플라스틱산업협회(PLASTICS)는 NPE The Plastics Show에서 바이오플라스틱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할 예정이다. 전시장에 45개 이상의 바이오플라스틱 관련 전시업체가 참가하는 NPE 2024는 미주 지역에서 바이오플라스틱 기업이 모이는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NPE 2024는 2024년 5월 6일부터 10일까지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오렌지 카운티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다.

NatureWorks, LG Chem, Evonik, Lyondell Basell 등과 같은 기업들은 47,000평방피트 이상의 전시장에서 바이오플라스틱 폴리머 및 첨가제에 대한 최신 개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참석자들은 혁신적인 지속 가능성 솔루션을 제공하는 최신 재료, 기술 및 프로세스를 탐색하는 동시에

완전히 새로운 지속 가능성 무대와 두 개의 재활용 및 지속 가능성 구역에서 다양한 지속 가능성 전문가, 공급업체 및 제조업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NPE 2024는 지속 가능한 플라스틱 제조가 사회, 환경 및 산업을 위한 가치 창출을 어떻게 주도하는지 직접 살펴볼 것이다.

PLASTICS의 지속 가능성 담당 부사장인 Patrick Krieger는 “등록자들이 새로운 최종 시장 솔루션, 바이오 플라스틱, 경량화, 순환성 등의 최신 솔루션을 탐색하면서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영감을 받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습니다. Krieger는 “우리의 최초의 지속 가능성 허브는 지속 가능성 분야의 리더를 조명하고 재생 가능한 공급 원료, 수집, 분류, 에너지 효율적인 제조 등과 같은 영역에서 행동 중심의 디스플레이를 포함할 것입니다.”라고 Krieger는 말했습니다.

또한 플라스틱 재료 공급업체, 가공업체, 장비 공급업체, 바이오플라스틱 산업 투자에 관심이 있는 브랜드를 위해 만들어진 PLASTICS는 NPE 기간인 5월 8일에 2024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조사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조사(Bioplastics Market Watch) 신판은 2018년 보고서와 비교한 최신 시장 데이터를 제공하여 오늘날 바이오플라스틱 비즈니스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 성장 수치, 정책적 의미 및 소비자 인식을 보여준다.

Perc Pineda 박사는 “이 보고서를 통해 우리는 지난 보고서가 발행된 이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 전망이 어떻게 발전해왔는 지를 포함하여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소비자 인식, 업계 내 지속가능성 가치 및 기능성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말했다.

플라스틱 산업 협회(PLASTICS)는 장비 공급업체, 자재 공급업체, 가공업체, 재활용업체를 포함하여 전체 플라스틱 공급망을 지원하는 유일한 조직으로, 5,480억 달러 규모의 미국 산업에서 백만 명 이상의 근로자를 대표한다. PLASTICS는 재활용 및 지속가능성의 역할을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술에 투자하고 우리 삶의 보호와 안전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 제품을 제공하는 데 헌신하는 회원들의 우선 순위를 높이고 있다. 1937년부터 PLASTICS는 회원사이자 미국에서 7번째로 큰 제조 산업을 전 세계적으로 더욱 경쟁력 있게 만드는 동시에 교육 이니셔티브, 업계 최고의 통찰력과 이벤트, 소집 기회 및 정책 옹호를 통해 순환성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thiopia

포장시장 소개

플라스틱 소비량 증가

에티오피아에서의 확장을 위한 제안

산업 기계 및 장비: 상자, 상자, 상자, 종이 튜브,

종이 배럴 제조 기계, 플라스틱 사출 성형 기계, 플라스틱 또는 고무 금형, 금속 가공 도구, 포장 또는 열 수축 포장 기계, 톱질 기계 또는 절단 기계, 고무 판 인쇄기, 로프 제조 또는 로프 제조 기계 등 대만의 기계 및 장비는 이미 동아프리카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있으며 에티오피아의 경제가 막 시작되었고 산업 기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만의 기계 제품은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에티오피아는 동부 및 중앙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1차 플라스틱 수입국이다.

에티오피아는 플라스틱 원료를 전혀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원료의 100%를 수입(주로 중동, 유럽, 아시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에티오피아 시장은 1차 플라스틱 수출업체에게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2007년부터 2020년까지 플라스틱 원료 수입량은 연간 13.5% 증가해 43개에서 224개로 421% 증가했다

에티오피아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증가한다

지난 몇 년간 에티오피아의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은 2007년 0.6kg에서 2021년 2.6kg으로 매년 11%씩 증가했다.

2022년 에티오피아의 플라스틱 소비(용도별): 소비의 51%는 포장에서, 17%는 건설에서, 7%는 자동차에서, 3%는 전기, 전자 및 통신에서, 나머지는 다양한 산업에서 발생했다.

2022년 가공방법별 에티오피아의 플라스틱 소비량을 보면 플라스틱 가공이 51%로 압도적이며, 사출성형이 25%, 블로우성형이 7%, PET와 스트레치 블로우성형이 9%를 차지했다.

에티오피아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강력하고 꾸준히 증가해 왔다. 지난 몇 년간 에티오피아의 플라

스틱 소비량은 2007년 44개에서 2022년 280개로 연간 12.2%씩 증가했으며, 2026년에는 393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에티오피아는 동부 및 중앙 아프리카에서 플라스틱 기술에 가장 큰 투자국 중 하나이다.

2021년 에티오피아의 플라스틱 기술 수입량은 2,500만 유로로 동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두 개의 플라스틱 기술 수입국 중 하나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에티오피아의 연평균 성장률은 9.6%였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플라스틱 기술 수입국이기도 하다. 인구는 현재 1억 2천만 명에서 2050년에는 2억 명으로 크게 증가했으며(UN), 앞으로도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두 자릿수 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에티오피아의 인쇄 및 종이 가공 기술 수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에티오피아는 연간 성장률 7.4%를 기록했으며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인쇄 및 종이 가공 기술 수입국 중 하나이다.

에티오피아는 동부 및 중앙 아프리카에서 포장 기술에 대한 가장 중요한 투자자 중 하나이다. 2021년 에티오피아의 포장 기술 수입은 1,700만 유로에 달하여 동부 및 중앙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포장 기술 투자자가 되었다.

인구는 현재 1억 2천만 명에서 2050년에는 2억 명(유엔)으로 크게 늘어날 것이며, 이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필요할 것이다.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대규모 시장을 제외하고 가장 성과가 좋은 국가이다. 지난 3년간 경제성장률은 인상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10년간 평균 경제성장률은 8%를 넘었다.

에티오피아는 남부 아프리카에서 다섯 번째로 큰 경

제 규모를 자랑하며 지난 10년간 약 10%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에티오피아는 19개 회원국과 3억 8천만 명의 인구를 보유한 '동부 및 남부 아프리카 공동 시장'의 회원이다. 2014년 3월 에티오피아는 COMESA의 자유 무역 지역 협정에 가입하고 일부 상품을 개방하여 아프리카 간 상품 유통을 허용했다. 회원국은 특혜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일부 제품은 관세가 면제될 수도 있다.

에티오피아는 'EU-아프리카-카리브해 및 태평양 국가 무역 시스템 협정'의 회원국이다. EU로 수출되는 모든 공산품과 농산물은 무쿼터, 무관세 또는 관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미국의 '아프리카 무역 성장법'의 혜택을 받아 미국으로 수출되는 6,500개 품목의 제품에 대해 쿼터와 관세가 면제됩니다. 특혜 관세 협정에 따르면 케냐의 3,000개 이상의 공산품이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 웨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및 기타 유럽 국가로 수출되며 특혜 관세 및 쿼터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유엔 아프리카경제위원회와 아프리카연합 본부가 모두 수도인 아디스아바바에 위치해 있어 아프리카 진출을 준비하는 기업들은 기술적 우위를 십분 활용해 아프리카를 발전시킬 수 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개혁개방을 추진하여 아프리카에서 가장 빠른 경제 발전과 가장 큰 투자 잠재력을 지닌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Germany

세계 최대 제과 전시회 'ISM 2024' 성료

한국 '떡볶이맛 젤리' 혁신 제품으로 소개됐다

독일 쾰른 국제 제과 전시회 ISM 2024가 지난달 31일 4일간의 여정을 성황리에 마쳤다. ISM은 매년 초 개최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B2B 전시회로, 스낵류,



▲ ISM 2024 전시장 현장 사진

초콜릿, 사탕, 젤리, 제과제빵류, 아이스크림, 견과류 등 폭 넓은 제품군을 자랑한다. 140개국의 약 3만 명의 해외 바이어가 ISM 2024에 방문했다. CVS(미국), 로블로우(캐나다), 매그니트(러시아), 메르카도나(스페인), 메트로(독일), 미그로스(스위스), 세인스버리(영국), 아홀드 델레이즈(네덜

란드), 오상(프랑스), 월그린(미국), 월마트(미국), 이온(일본), 인터막쉐(프랑스), 제이디 닷컴(중국), 코스트코(미국), 쿵(이탈리아), 크로그(미국) 등 전 세계 시장 트렌드를 이끄는 거대 유통사가 전부 방문해 더욱 눈길을 끌었다. 벨기에, 영국,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우크라이나, 중국, 이스라엘, 일본, 캐나다, 미국 바이어의 비중이 상당했으며, 독일 외 국가의 바이어만 2만 명이

넘는다.

국내에서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CJ푸드빌, 코스트코코리아, 투썸 플레이스 외에도 농심, 서주, 오리온 등 70개 기업이 방문해 업계 동향과 트렌드를 살폈다.

ISM 2024에서 돋보이는 키워드는 ‘프롬 코리아 (from Korea)’였다. 해외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통사도 한국 간식을 내세웠다. 지난 회 김과자로 ISM 어워드 1위를 수상한 네덜란드의 미츠바(Mitsuba)사는 올해 ‘코리아 안 바비큐 맛 쌀과자’로 이목을 끌기도 했다.

ISM에 꾸준히 참가해 온 ‘나무인터내셔널’의 떡볶이 젤리(주에스디푸드 제조)는 혁신적인 신제품 (New Product



▲ 아모스(Amos) 부스 사진

Showcase)으로 전시됐다. 한글로 적힌 “떡볶이 젤리”와 이색적인 맵단(맵고 단)의 조합은 해외 바이어의 눈길과 입맛을 사로잡았다. 지난 10월, 세계 최대 규모 식품전시회 ‘아누카’에서 삼립(주)의 미니 약과가 혁신상을 받은 데 이어, 국내 식품 기업의 시장 입지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과·제빵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선정하는 ISM Awards는 에카파이 씨포(Ekachai Savetsomphob) 시노 퍼시픽 회장에게 돌아갔다. 에카파이 씨포 회장은 태국 식품 유통의 ‘큰 손’이자, 국내 유수의 기업과 협력을 통해 한국 식품 수출 확대에도 기여한 바 있다.

사상 최대 규모였던 2019년의 85%에 달하는 규모였다. 지난 회 대비 약 20% 증가한 방문객 수는 차기 전시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다. ISM 2025는 2025년 2월 2일부터 5일까지 개최될 예정이며, 참가문의는 ISM 주최사 쾰른메세 한국대표부 라인메세(shyu@rmesse.co.kr, 02-798-4102)에 할 수 있다.

Coim

연포장재활용에 투자

높은 인쇄 품질 실현

1962년부터 특수 화학 물질을 생산해 온 이탈리아계 다국적 기업인 Coim은 연포장용 잉크를 포함한 재활용 가능한 폴리우레탄 기반 솔루션 전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여러 연구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있다.

유연한 포장 잉크 부문 책임자인 Ivo Sensini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재활용 공정으로 인한 재료 품질 저하 없이 유연한 플라스틱 포장을 기계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오늘날 재활용 플

라스틱은 벤치나 비닐봉지 생산과 같이 원래 플라스틱보다 덜 고귀한 용도로 재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지속 가능한 프로세스가 아닙니다. 따라서 목표는 니트로 기반 잉크를 폴리우레탄 기반 잉크로 대체하여 재활용 단계에서 모든 종류의 응용 분야에 사용할 수 있는 투명하고 투명한 과립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폴리우레탄 기반 잉크는 재활용 외에도 현재 유연한 포장에 사용 가능한 수준의 인쇄 품질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실제로 업계 전체는 유럽 포장의 특히 높은 미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매우 복잡한 이미지에도 우수한 품질을 제공하는 인쇄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왔다. Coim은 현재 사용되는 잉크와 동일한 인쇄성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oim은 고객에게 유연한 포장을 위한 완벽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적 ‘3 in 1’ 접근 방식에 따라 잉크 영역뿐만 아니라 유연한 포장용 코팅 및 접착제 분야에서도 재활용 가능한 솔루션을 식별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근 유연한 식품 및 의약품 포장용 PE 다층 필름 생산에 사용되는 용제형 지방족 라미네이팅 접착제인 COIM Novacote NC 560 A + CA 101은 유연한 폴리에틸렌 재활용 흐름과 완벽하게 호환되는 것으로 Recyclass의 승인을 받았다.

Recyclass에 따르면, “과학적 테스트에 따르면 다른 많은 라미네이팅 접착제와 달리 Coim 기술은 최종 재활용품의 색상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재활용성 승인은 플라스틱 포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일부 설계 문제를 극복하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또한 Coim이 회원으로 속해 있는 Recyclass 적층 접착제 실무 그룹의 작업을 강화하여 적층 접착제 사용에 대한 지식을 창출합니다.”